

“아이·청년·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모든 역량 쏟을 것”

정현복 광양시장 민선 6기 취임 3년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UN 조달물류기지 유치 총력
예술고·예술대 설립 검토...문화·레저 어우러진 관광지

어떻게하면 ‘아이·청년·여성’이 행복한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정현복 광양시장이 시장의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고 모든 역량을 쏟고 있는 과제다. 남은 1년도 마찬가지다.

정 시장은 최근 시청에서 열린 ‘민선 6기 취임 3주년 간담회’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2년간 공을 들여 전국 최초로 설립한 어린이 보육재단은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보육재단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보육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국가와 지자체 뿐 아니라 시민·기업·종교·아파트 공동체까지 참여시켰다.

자녀를 둔 부모,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분야까지 세심하게 챙겨 아이를 키우는 데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보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위한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 올해 말까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계획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정 시장은 더 나아가 남은 1년,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에 역점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청년희망, 행복광양’이라는 종합계획이다.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행복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는 한편,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청년들이 각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참여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개 분야로 나눠 34개 관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 시장 복안이다.

‘희망일자리’ 분야에서는 우선, 전체 기업 중 포스코 관련 기업이 90%에 이르는 점을 감안, 기가스틸, 리튬, 무인이동체 등 신산업분야를 육성, 철강 위주의 산업구조를 다변화시키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그가 남은 1년,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구상과 맥이 닿는 대목이다. 정 시장은 정부 공약인 ‘광양항 미개발 부두개발’을 비롯한 2조 9000억원 규모의 5개 사업 이행과 UN 조달물류기지 유치에도 전력을 쏟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각 기관별 분산된 일자리 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직업교육기관 커리큘럼을 고도화하는 등 취업지원활동도 강화한다. 청년들의 창업을 돕는 콜센터·멘토단을 운영하면서 광양읍 도시재생사업 지역과 연계, 청년창업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 고유의 놀거리를 제공하고 창업이 육성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행복 주거’ 분야 정책으로는 ▲청년 주택자금·대출이자 지원 ▲청년 행복주택 공급 ▲독신 근로자 공공기숙사 지원 사업



정현복 광양시장



중마~금호 해상보도교인 무지개다리

등을 펼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광양지역 문화·여가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 중 4.2점에 불과할 정도로 미흡하다는 점을 감안한 ‘정주여건 개선’ 대책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문화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펼쳐 지역 자체 문화예술 여건을 개선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앞선다.

문화와 관광을 도시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광양읍권, 중마권, 백운산권, 섬진강권 특화 개발 전략과 연결지진다. 정 시장은 남은 기간, 광양읍권의 도

립미술관을 중심으로 폐산업시설 재생, 동서천 둘레길, 서천변 불고기 테마파크 등으로 특화하고 중마권은 예술고와 예술중, 예술대 설립까지 검토하고 이순신대교 주변 해안은 젊은 문화의 거리로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섬진강에는 뱃길을 복원하고, 섬진강 시내마 빌리지, 운동주 기념 사업 등 자연과 문화, 레저가 어우러진 관광지 발전시켜 나간다.

정 시장은 “남은 1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경쟁력 있는 더 큰 광양, 미래에 희망이 있는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이순신대교 야경

‘8월의 별 헤는 밤’ 운동주 문학축제...내달 11·12일 개최

광양시, 사업자 공모 나서

운동주 탄생 100주년과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발간 72주년을 맞아 문학 축제가 광양에서 열린다.

광양시는 다음달 11일부터 이틀간 광양시 해양공원 일대에서 ‘8월의 별 헤는 밤’을 주제로 문학 축제를 열기로 하고 사

업자 공모에 나섰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운동주 시인을 오늘의 시간으로 불러내 그를 기억하고 그가 남긴 시집을 이야기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광양시는 문학·예술·음악 분야로 나눠 문학으로는 운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시 낭송 100인 퍼포먼스’, ‘운

동주 시 필사하기 체험’을 진행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운동주 시인의 ‘서시·지화상·햇비’ 등의 합창 공연과 통기타 가수들의 초청공연, 인디밴드와 젊은층을 위한 EDM 공연으로 채워질 음악 행사도 마련했다.

100명이 함께하는 ‘차맥’ 파티, 예술가들이 광양 해양공원 일대를 별로 장식하는 퍼포먼스 등도 진행되는 방향으로 사업자와 협의키로 했다.

특히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에 위치한 정병욱 가옥(등록문화재 341호)과의 인연을 연계, 문화와 음악·미술을 아우르는 축제를 계획했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병욱(1922~1985) 가옥은 운동주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시’가 보관돼 있던 곳으로, 그는 1940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면서 선배인 운동주를 만났다. 평소 두 사람은 문학을 이야기하며 각별한 우정을 쌓았다. 프리마켓 등 먹거리 코너도 마련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운동주 시인(왼쪽)과 정병욱 전 교수



운동주 유고 보관했던 정병욱 가옥



별 헤는 밤 조형물



광양시, 마동근린공원 물놀이 시설 29·30일 운영

아이들이 잠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다

면... 광양시가 도심 속 물놀이 시설(사잔)을 마련, 운영한다. 수차상으로 남는 장사는 아니지만 워터파크도 없는 아파트로 둘러싸인 도심 속 아이들을 위해 잠시 더위를 피하며 뛰 어놀 공간을 마련해주자는 취지가 담겼다.

광양시는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광양시 마동근린공원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지난해도 같은 기간 운영하면서 이틀간 2514명(어린이 1396명, 보호자 1118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미끄럼틀 형태의 에어바운스(air bounce) 3개를 설치하고 물놀이장, 몽골텐트, 탈의실 등을 갖춘 아이들이 무더위에도 지지 않도록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광양시는 무료로 이용토록 계획했다가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를 감안, 1000원의 이용료를 받기로 했다.

물놀이시설을 이틀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만 2500만원, 지난해의 경우 2480만원을 들여 이용료로 99만7000원을 벌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광주광역시 북구 증흥동 373-14
광주역후문 증흥삼거리 부근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